

# 코로나19 여파,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부담 경감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도비로 지원 정부지원시간 한도 제외 특례 적용도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등 휴원, 개학연기에 대비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경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특수시책으로 2020년부

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놓은 지침에 발맞춰 경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한도 제외 특례는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 1월 31일 이용 건부

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가정으로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8시간이다.

아동이 속한 시설이 휴원·휴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한도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적용하는 정부지원금 확대 특례는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5~40% 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시간당 0~2,967원의 요금만 내면 돼 실제 본인부담금이 준다. 지원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본인부담금을 선납 후 경북도 추가지원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 행)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아 요금이 무료이며, 120% 이하 가정(나 행)은 60%(5,934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0%를 지원받아 1,978원(20% 수준), 150% 이하 가정(다 행)은 50%(4,945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5%를 지원받아 2,472원(30% 수준)의 요금이다.

정부지원 미 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 행)은 이번 특례로 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30%를 지원받

음에 따라 기존 4,945원에서 2,967원(30% 수준)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돌봄을 돌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접촉자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화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 경북교육청, 내실있는 일상감사 '일석이조'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에 대한 일상감사로 신청 사업비 5,814억 원의 0.37% 수준인 21억 6,484만 원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정 가격 5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 원 이상의 기타공사, 5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등 624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 예산절감, 시설공사의 안전 확보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2년도 일상감사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도내 전기

관 대상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 전 수 점검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누락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2018년의 435건 대비 43.5%가 증가한 624건에 대한 일상 감사를 했다.

아울러 5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15건)에 교수·기술사·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설공사명예감사관'을 참여하게 해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장밀착형 일상감사로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 분야 일상감사 대상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지원청

을 거쳐 감사관에게 의뢰하던 유·초·중학교의 일상감사 절차를 간소화해 유·초·중학교장이 직접 감사관에게 일상 감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일상감사 의견통보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시설공사 4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만큼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감사 기능을 강화해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 도,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전국 최다 선정

22개 시·군, 총 57개소  
사업비 122억 원 확보

경북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설치와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2020년도 국비사업에서 전국최다인 57개소 122억 원(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 기계화율을 촉진하기 위해 '04년부터 시작해 농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지

원 등의 사업을 골자로 한다.

금년도 선정된 세부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설치에 2개소 20억 원, 주산지 장기 임대농기계 구입지원에 42개소 84억 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지원에 7개소 6억 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지원에 6개소 12억 원을 확보해 농가 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 확충을 통한 적기농업과 귀농·여성·고령농의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6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유한 농기계는 11,971대이고, 종사자는 362명이다. 금년 말까지 지난해 추가선정돼 추진 중인 2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를 더해 총 7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해 지역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이 결국 농가부채의 근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농기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도 국비확보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소 인턴지원과 같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 경북교육청, 개학연기 따른 학교급식 대책 안내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대책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준비분야, 급식종사자의 위생분야, 급식종사자의 복무분야, 식재료 구매계약 분야, 개학

후 학교급식 시 학생과 교직원들의 유의 사항, 개학연기에 따른 결식우려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등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는 당분간 학부모 모니터링과 외부인의 급식소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정기방

역과 내·외부 소독 발판 비치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보건소를 통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개학 연기로 인해 저소득층자녀 등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북도청 사업부서(아이세상지원과)와 협의해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학중 중식지원’ 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준수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 경북교육청, 복잡한 교육공무직원 급여

자동 계산프로그램 개발 박차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 일선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자동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급여는 근로기준법과 단체 임금협약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학

교 업무담당자가 직접 계산해 지급하며 다양한 직종(2019년 통계 기준 53개 직종), 복잡한 근무형태와 보수기준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무원과 달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급여업무 전산화가 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의 해소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정보 등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 전 소속기관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급여 프로그램 개발로 일선 학교와 기관의 업무가 경감되고,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대폭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 경북교육청, 중·고 교육과정 길잡이 보급

신입생 학부모 위해

경북교육청은 변화하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신입생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부모를 위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길잡이’를 제작·배부했다고 3일 밝혔다.

2020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고등학교 전체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

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했다.

‘중학교 학부모용 길잡이’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안내하고 Q&A를 통해 입학 준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학부모용 길잡이’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징, 선택과목 유형을 적용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

공통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 고교교실제 운영 등을 안내했다.

지난 1월 도내 중·고등학교와 23개 교육지원청에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자료실에 파일을 탑재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NEW ARRIVAL**

SHOP NOW

특양면맨투맨 (S~2XL)-10컬러

홍색, 코발트, 자홍, 오렌지, 아이보리, 수박, 분홍, 멜란지, 근색, 검정

특양면후드집업 (S~2XL)-10컬러

홍색, 코발트, 자홍, 오렌지, 아이보리, 수박, 분홍, 멜란지, 근색, 검정

www.tbalenkey.co.kr

단체복주문제작 / 제품문의 053-562-7088